증권

Sector Issue Brief 2026. 03. 10

증시 변동성 확대로 거래대금 급증. 거래강도 과열 구간

Check Point

- 3 월 거래대금 100 조원 상회
- 1Q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
- 회전율 500%: 거래강도 과열구간

| Analyst **전배승** | bsjun@ls-sec.co.kr

증시변동성 확대: 거래대금 추가 상승

▶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양상이 심화. 동시에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일평균 120조원에 달하는 폭증세를 보였으며, 최근까지도 7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
▶ 26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62조원, 2월 69조원에 이어 3월 현재까지 102조원으로 역사적 수준을 기록 중. 특징적인 부분은 NXT의 거래대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%까지 증가

▶ 고객예탁금 또한 26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며 1월말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최근 130조원까지 상승. 지수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지속적인 증시자금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음.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, 예금잔액 등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확인됨

▶ 신용잔고 역시 33조원으로 꾸준한 상승흐름 지속. 지난 4분기 대비 1~3월 중 평균 신용잔고는 이미 17% 증가

'26.1Q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: 현 추세 감안시 QoQ +100% 이상 증가 예상

▶ 26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78조원으로 25년 4분기 37조원에 비해 110% 급증. 25년 연평균 26조원에 비해서는 196%가 증가. 즉, 1분기 국내증시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지난 4분기에 비해 2배, 지난해 연평균에 대비로는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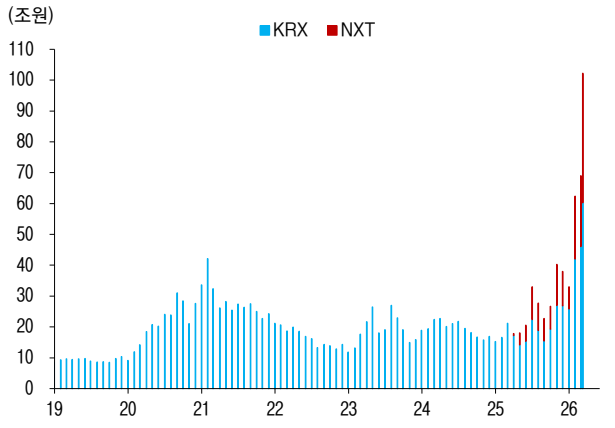
▶ 해외증시 거래대금은 25년 4분기 대비 20% 내외 감소가 예상되나, 신용잔고 평잔은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%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용이자 확대가 예상됨. 따라서 '26.1Q 전체 브로커리지 수익은 전분기와 전년동기대비 급증할 전망

거래강도는 과열구간 진입. 회전율 역사적 최고 수준

▶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시가총액 회전율은 500% 수준까지 상승하며 과거 코로나 국면과 2000년대 초반 IT버블 시기와 함께 역사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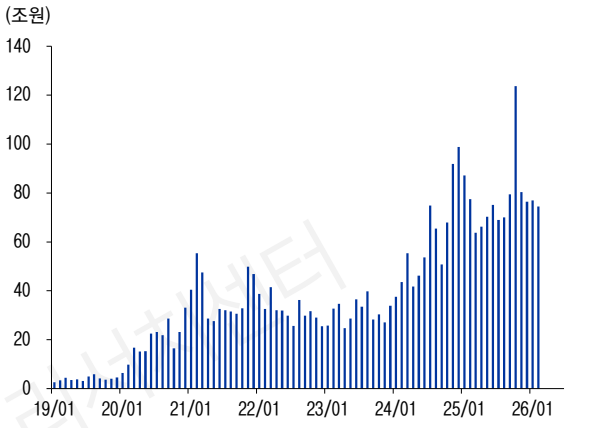
▶ 증시 거래강도는 과열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. 과거 경험적으로 회전율이 300~400% 이상 수준을 유지한 기간은 대략 6개월 내외

그림8 국내증시 거래대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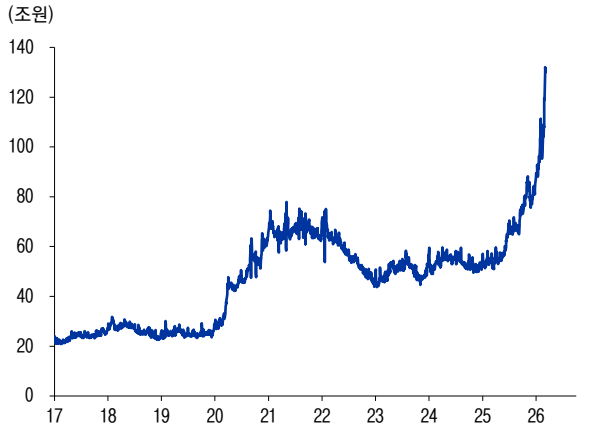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해외증시 거래대금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고객예탁금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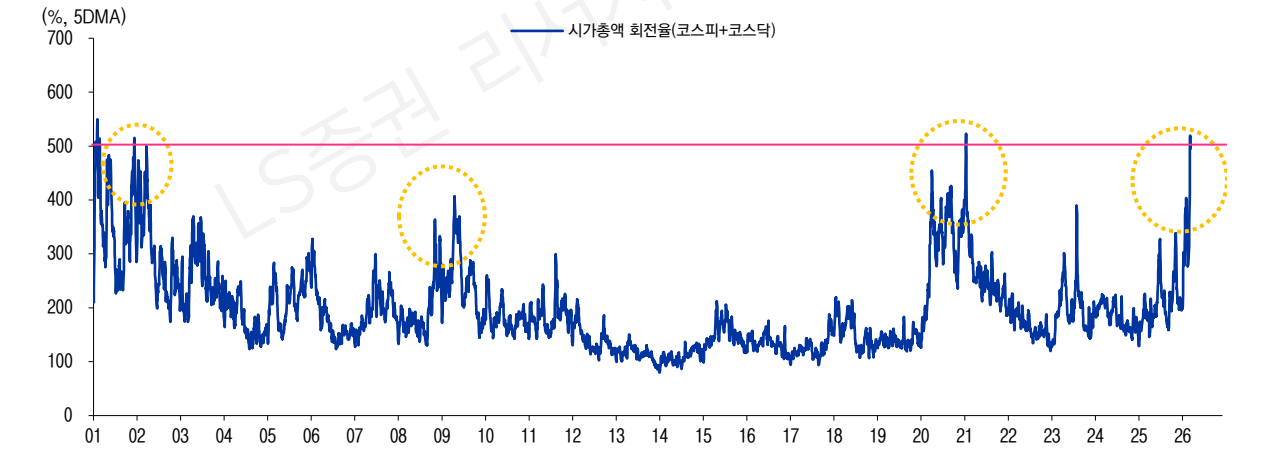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신용잔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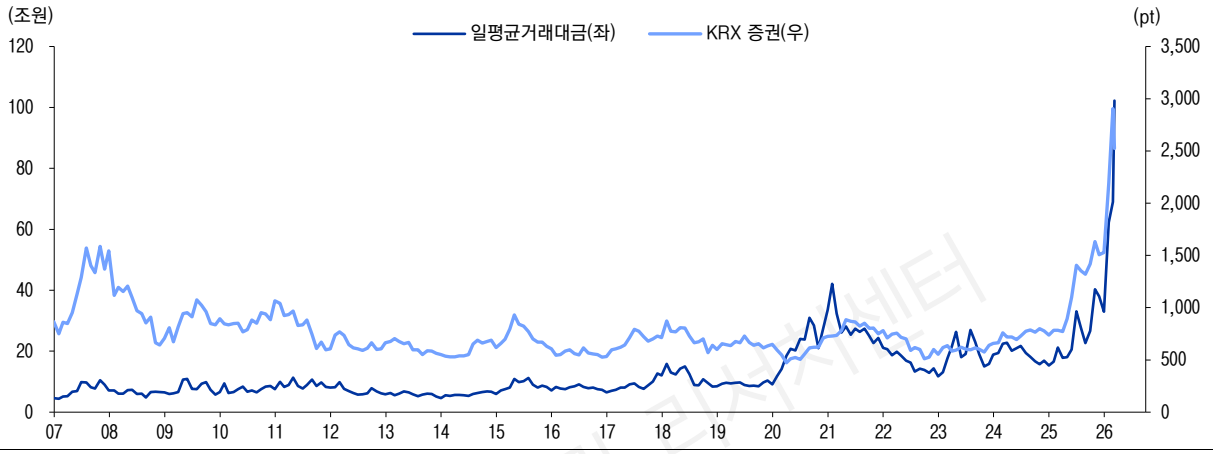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일간 시가총액 회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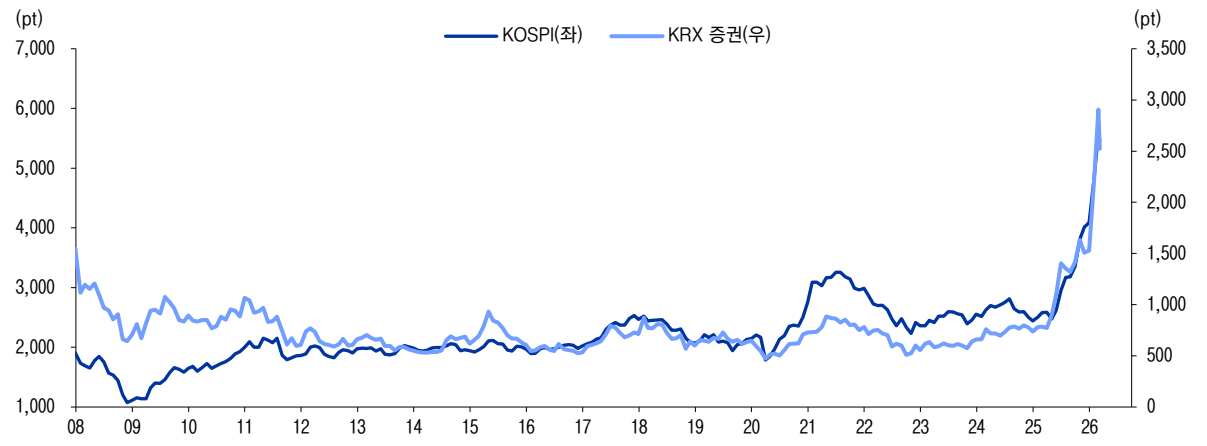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일평균 거래대금과 증권업지수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KOSPI 와 증권업지수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8.7% 11.3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5. 01. 01 ~ 2025. 12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